

## 가작

우정수(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비체

#### 꿈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내게 세상은 높고 시끄러웠습니다 나는 흐린 눈  
빛의 떠도는 강아지, 감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채로 실재하는 개가 있습니까?

보여지지 않은 채로 실재하는 개가 있습니까?

스치듯 서서히 사라지는 의문들

얼룩인 감정,

#### 긧 보이, 긧 보이

나는 좋은 개는 아닙니다 송곳니가 그것을 증명하죠

나는 단지 기다리는 것을 잘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다양한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나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믿고 싶어지  
는군요 당신이 살면서 만난 모든 개들 나는 그들을 대표하여 왔습니다

배운 것도 아닌데

배를 뒤집고 꼬리를 흔드는 개들

계절 바뀔 때마다 사라지고 교체되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충성하는 시골의 개들 매년  
간절하고 매번 기억하는,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차피 당신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다림이 인식표처럼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가 아는 세상은 푸르고 노란 게 전부인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 언제든 놀리면 아픈 구  
석 하지만 나를 대신해 슬퍼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진한 것들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착하고 너무 무지해 왔습니다

#### 기록

최초의 개가 있어 내가 생겼습니다 나는 직선적이지만은 많은 역사를 떠올립니다 몸을 불  
사른 나의 조상들 뒤틀린 채로 남은 석고상 그 미이라와 그리움의 비문들, 길들여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훈련과 교정

기억해야 합니다

유품처럼 물려받게 되는 슬픔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 알뜰하게 느껴지면 나는 짓게 됩니  
다 미안해요, 어디로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당신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완전히 깨어날 수는 없었습니다